

서울말과 경상도말의 낱말 억양 비교

-외래어 읽기를 통하여-

문수미, 김선미, 성평모

서울대학교

A Comparative study of Seoul and Gyungsang dialect's tonal patterns

-by loan words-

Soo-Mee Moon, Sunmi Kim, Koeng-M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서울말과 경상도 말의 고저형(tonal patterns)을 외래어 읽기를 통해 비교해 본 것으로, 두 방언의 고저형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음절수, 음절 구조(폐음절/개음절), 어두 자음의 성격(phonation type) 등임을 밝혔다. 두 방언은 이런 변수의 작용을 선택적으로 받는데 유형론적으로 비성조 언어인 서울말은 음절수, 어두 자음의 성격이 고저형에 영향을 주며, 성조 언어인 경상도말은 음절수와 음절의 구조가 외래어에 있어서는 고저형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서울말과 경상도말의 낱말의 고저형을 외래어 읽기를 통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 것이다. 유형론적으로 다른 두 방언을 이처럼 외래어를 통해 비교한 것은 서울말에서 구의 속성으로 존재하는 고저형을 다른 방언과의 비교

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히고, 경상도말의 경우 고유어에서는 이미 어절마다 고저형이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고저형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외래어에서는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는 모두 낱말이고 인용형으로 읽혔으며, 음절수와 음절 구조에 따라 두 방언을 비교 관찰하였다.

2. 연구 방법

실험 자료는 2음절에서 5음절까지의 외래어 270개로 음절수와 음절 구조에 따라 분류하였다. 1) 270개의 낱말 각각을 카드에 적어 무작위로 섞어, 자칫 같은 부류의 낱말들을 계속 읽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운동적 관성(慣性)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 낱말들을 서울말 토박이 3명과 경상도말 토박이 3명에게 각각 3번씩 읽도록 하고, Shure사의 SM58s 마이크를 사용하여 DAT(Digital Audio Tape-Recorder)로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필자들이 청취 분석하고 음향 분석기인 CSL로 F0 track을 채취하였다.

3. 선행 연구 검토

3.1 서울말 구액센트의 특징

Lee(1989)는 서울말의 억양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억양구와 액센트구, 그리고 음운론적 단어의 세 단위를 설정하였다.2) 억양구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액센트구로 이루어지며, 다시 액센트구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음운론적 단어로 구성되고 그 고저형은 어두(initial)의 F0 peak와 마지막 LH의 액센트로 나타난다. 이 LHLH의 구액센트는 음절수가 충분하고, 신중히 발음하면 제대로 나타나고, 음절수가 2, 3음절 정도로 짧으면 initial peak가 나타나지 않거나(LLH), HLH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런 가정에 기반한 서울말의 액센트구의 기술이 계속 이어져 왔다.

3.2 경상도말의 고저형

순수 경상도말의 어절에 나타나는 고저형에는 Ln(저조), Mn(중조), HnMo(고조) 형이 있다.3) 여기서 경상도 방언은 진주 방언을 일컫는다.

진주 방언은 저조(Ln)가 고조(HnMo)로 상승되고, 중조의 Mn(MMn)이 HHMn으로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외래어에서는 HnMo(MHnM, HMn), HHMo 형만이 나타나게 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성조형은 서울말에 나타나는 유형 즉 LH, HH, HL과 비교해 보면 어떤 연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결과 분석

날말의 음절 구조를 편의상 배음절은 '맘'으로 개음절은 '마'로 부르기로 한다. 음절의 높낮이는 서울말은 두단계 즉 H와 L로 표시하기로 하고, 경상도말은 H, M, L의 세단계로 설정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경상도말에서 L은 낮고 장음어 오는 음절에만 쓰이므로 장단의 구분이 거의 없게 되고 성조 상승이 일어난 진주 방언에서는 H

와 M으로 대부분의 자료를 표시하게 된다. MHnM는 H들 앞뒤에 M이 하나씩 나타나는 성조형, 또는 H의 앞뒤에 M이 오는 성조형을 가리키고, HMn은 H 뒤에 중조가 연속되는 성조형을 가리킨다. 중조에서 온 HHMn은 어두에 두개의 H가 오고 나머지는 중조로 나타나는 성조형이다. 자료는 청취상의 판단과 함께 음향 분석기를 통해 나온 결과를 함께 고려하였다.

4.1 서울말

서울말은 경상도말만큼 다양한 유형은 아니지만 청취상의 판단에 의하면 어두의 피치 곡선이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LH, HH, HL가 그것이다. 그러나 음향 분석기를 통해 나타나는 피치 곡선은 하강(declination) 현상 때문에 LH 유형과 HL 유형만이 나타난다. 경상도말에서도 청취상 가장 높게 들리는 음절과 실제 음향 곡선 상의 peak가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청취상의 억양 표시와 피치 곡선에 의한 억양 표시간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말의 경우 둘째 음절이나 셋째 음절의 음절 구조는 억양 형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므로, 자료를 첫음절의 음절 구조에 따라서만 '맘-'형과 '마-'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

2음절 마형 HL 데모, 버너, 래몬
맘형 HL 망고, 론도, 엘범

3음절 마형 LHL(HHL) 비닐론, 이미지
HLL, HHL 뼈아제

맘형 HHL(LHL, HLL) 곤돌라, 방갈로
장자음 HHL, HLL 뼈아제

4음절 마형 LHLL(HHLL) 다다이즘, 비닐리덴
맘형 HHLL(LHLL) 말라리아, 몽골리안
장자음 HHLL, HLLL 코폴리더, 켈비니즘

5음절 마형 LHLLL(HHLLL)레모네이드,

마말레이드

맘형 HHLLL(LHLLL) 암모나이트
 강자음 HHLLL
 펜타그래프, 페닐아세트,
 형태소경계 LHLLL, HHLLL
 모노드라마, 오브알부민
 LLHLL, HHHLL
 브로모벤젠, 베어링메탈

2음절어의 경우, 음절 구조와는 상관없이 첫음절이 높고(H) 둘째 음절이 낮은(L) HL형으로 발음되었다.

3음절어는 첫음절의 어두움이 강한 자음일 때는 LHL형은 나타나지 않고 HLL이나 HHL형으로 나타났으며, 어두움이 약자음일 경우는 LHL, HHL형이 나타났다. 다만 화자에 따라 HHL형을 선호하거나 LHL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첫음절이 맘형인 경우는 HHL이나, HLL을, 마형인 경우는 LHL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강자음이란 된소리, 거센소리, /ㅅ/, /ㅎ/을 일컫고, 약자음이란 예사소리, 콧소리, 헛소리를 지칭하는데, 후행 모음의 F0에 대한 강자음의 간섭(perturbation)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 왔다.4),5)

4음절어는 HHLL, LHLL, HLLL형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HHLL형과 LHLL형 중 '마'-형은 대체로 LHLL형을, '맘'-형은 HHLL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첫음절이 강자음으로 시작하면 일관되게 HH-, 혹은 HL-형으로 나타났다.

5음절어는 하나의 액센트구로 발음되기보다는 두개의 구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각 액센트구는 다시 서울말의 2, 3음절의 구액센트의 유형을 따랐다. 즉 2+3음절의 경우는 앞 2음절을 LH나 HH로, 3+2음절의 경우는 LLH나 HHH로 내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하나의 형태소로 인식하여 LHLLL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결과로 서울말의 낱말 고저형은 음절수나 어두 자음의 종류와는 관계가 있으나 음절 구조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경상도말

2음절 마마 HM 데모, 버너
 माम MH 레몬, 모델
 माम MM(HH), HM 망고,론도, 렌즈
 माम MM(HH), MH 망간, 맥른, 길런
 3음절 मामा MHM 메리노, 이미지
 मामा MHM 오렌지, 마닐라
 मामा MHH 마그넷, 디자인
 मामा HHM 만노스, 랑대부
 मामा MHM 글로브, 돌리네, 불도저
 मामा HHM 방갈로, 곤돌라
 4음절 मामाम MHHM 마로니아, 마도로스
 मामाम MHHH 리그로인, 아로나민
 मामाम HHMM 선글라스, 몽골리안
 मामाम MMHM 알리바이, 말라리아
 मामाम MHHH 물리브덴, 글리아딘
 5음절 मामामाम MHHHH 올래오래진,
 मामामाम MHHHH 브로모벤젠

경상도말의 기본 고저형은 MHnM으로 뒤에서 두 번째 음절까지 고조(H)가 오는 것이 보통이고, 그 외의 형은 음절 구조나 첫음절의 마지막 자음과 상관이 있는 듯 했다.

경상도말의 고저형은 음절 구조의 영향을 받았다. 청취 판단에 의하면, 폐음절이 맨마지막에 오는 -맘형은 MHn로 났다. 또한 청취상으로 맨마지막의 H가 가장 큰 피치 흔들림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만약 첫음절이나 마지막 음절이 맘형이 아니면 MHnM형이 나타난다. 린넨, 망간은 माम-형으로 두 음절이 다 폐음절이 올 때는 두 음절 모두 HH의 형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고저형은 거성형으로 본래 중조의 MM이 상승되어 HH로 실현된 예이다.

그런데 첫음절이 맘-형인 경우라도 /r/로 끝나면 고조를 갖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현상은 3, 4, 5음절에서도 일관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순수어에서 경상도말이 저조(L)로 실현될 때 그 음절말 자음이 /r/이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은 현상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경상도말의 순수어에서 저조로 실현되는 낱말들은 M형이나 H형에 비해 /r/로 끝나는 낱말들이 숫적으로 대단히

많다.

2, 3음절을 제외하고 두번째 음절에만 고조가 오는 예는 매우 드물었다. 이는 서울말과 비교하면 매우 다른 양상이다. 또한 거성형이나 2음절을 제외하고는 어두에 고조가 오는 예는 없었다.

위의 결과로 경상도 방언은 고저형이 음절 구조나 음절 내 어말음의 종류와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서울말의 구액센트의 억양은 음절 구조보다는 음절의 어두 자음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고, 음절 구조에 의한 고저형의 변화는 경상도말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참고 문헌

- 1) 한국어 연구회(1987), 「외래어 표기 용례집」, 국어 연구소.
- 2) Lee, S. H.(1989), Intonational domains of the Seoul dialect of Korean, JASA., Supply 1, vol. 85.
- 3) 김차균(1980) 「나랏말의 소리」, 태학사.
- 4) Kim, M.J.(1991) A Phonetic study of the structure of fundamental frequency contours, SNU Ph. D. dissertation.
- 5) Umeda, N.(1981), Influence of segmental factors on fundamental frequency in fluent speech, JASA 70(2).

